

# THE LIVING

December 2013 월간 더리빙

**Report** 올해 마루시장 '강마루' 강세 이어졌다  
각종 법적 규제로 내년시장 변동 예고

**Special report** 2013 키워드 Flooring&Wallcovering  
**Project** 건축가의 집 내 집을 품은 '자연'과 동거동락  
Nature & Zen Style H-house

**Preview** 개나리벽지 트렌드, 스토리 출시



vol. 194 국산벽지가 가장 친환경적이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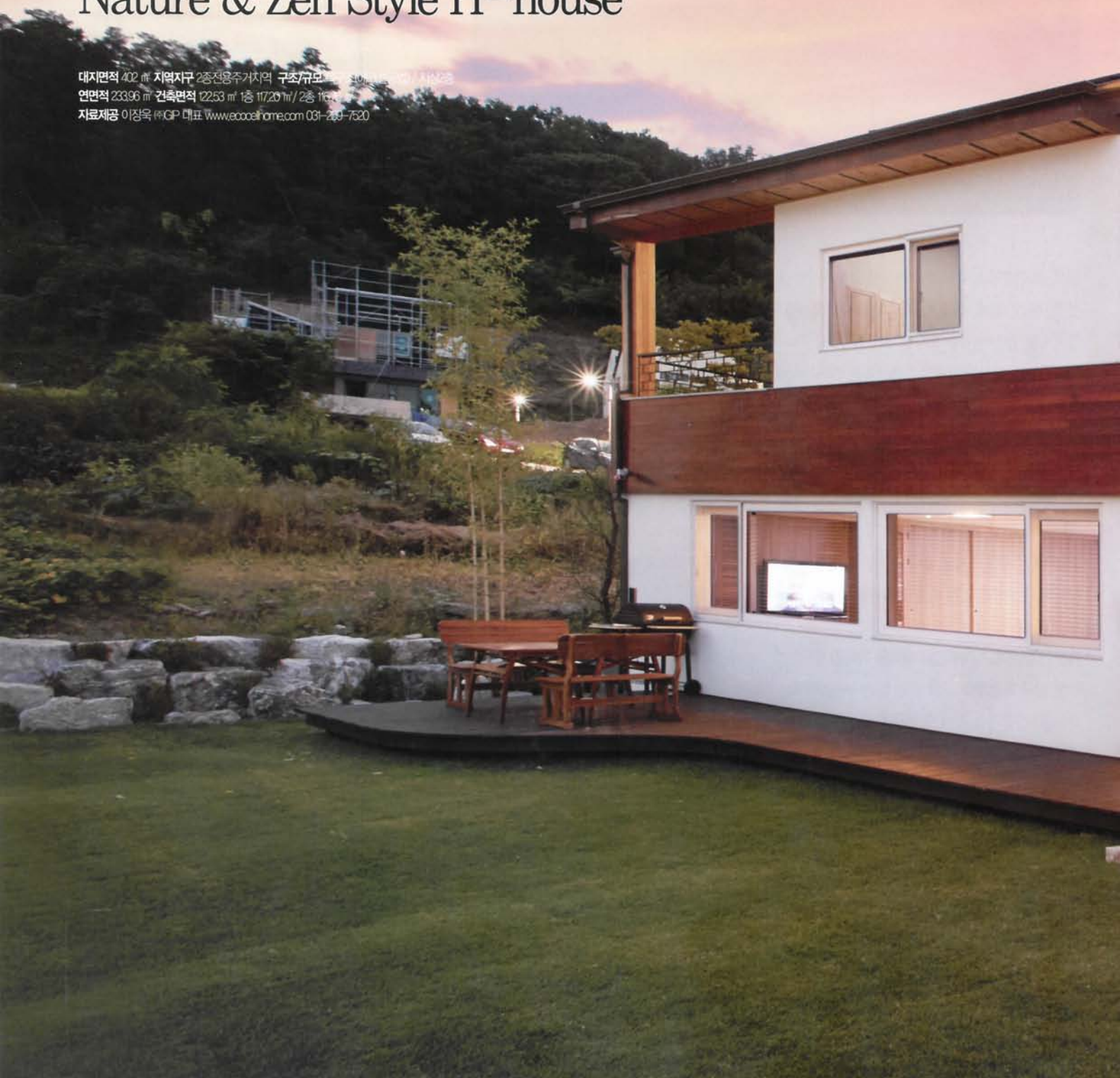


# 내 집을 품은 '자연'과 同居同樂 Nature & Zen Style H-house

대지면적 402㎡ 지역지구 2종전용주거지역 구조/규모 2010년 11월 15일 시공중

연면적 233.96㎡ 건축면적 225.3㎡ 1층 117.20㎡ / 2층 116.76㎡

자료제공 이장욱 ㈜GP 대표 www.ecoohome.com 031-269-7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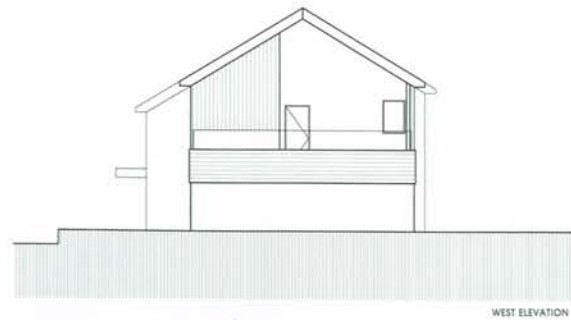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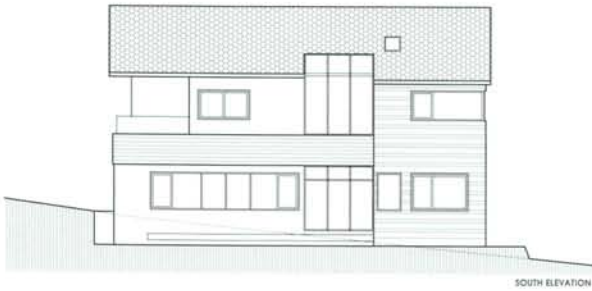


우리가 꿈꾸는 집에 대한 단상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한 집, 또는 다양한 디자인의 접목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집을 만들고자 한다.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위치한 H주택은 Zen Style을 선호하는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 내·외부를 디자인하였고, 여기에 주거 동선의 실용성을 부여했다.

특히 집은 단순 넓은 주거공간의 역할만이 아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곳. 이러한 생각은 H주택을 자유와 개방의 공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H주택은 대지면적 402㎡에 목구조(에코셀 공법)로 이뤄진 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되었다. 외관은 조소적 미를 느낄 수 있는 목재와 석재로 외관을 마무리하여 주변 자연에 순응하고 있다. 또 현관 진입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각 공간의 결절지점은 자연 요소의 수용과 함께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도록 계획되었다.



1. 2층인방에서 바라보는 중정 2. 현관입구를 들어서면 큰 아트월을 낮추세요 라는 주문이 가장 답답하다. 아파트에선 벽이 아니면 문이다. 문을 보여주기 싫은거다. 또한 너저분한 거실이나 부엌을 보여주기도 싫다. 주택의 현관에 들어왔을 때 꼭 집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3. 평상은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가 있는 멀티공간이다. 현옥의 대청마루가 이역할을 했는데, 기후에 민감한 현대인의 습성에 의해 사라졌다. 대청을 꼭 외부에 방과 방사이에 만들 이유가 있을까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는 평상은 가족이 모이게 되고 소파보다 이야기가 다채로워진다

## Company story GIP

GP는 지난 10여 년간 생태도시&#12539;단지&#12539;건축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만든 친환경 건강주택 전문기업이다. 특히 친환경 건강주택 브랜드인 에코셀 홈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및 생태주거단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왕겨숯을 활용한 GP만의 에코셀공법은 다수의 특허 및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시험으로 인정 받았다. 현재 판교, 흥덕, 동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건강주택을 설계 시공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1037-16)에 샘플하우스를 운영, 친환경 건강주택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 이장욱 대표

㈜GP 대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생태건축과 생태주거단지를 연구하였으며, 친환경 분야에서 유명한 대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유명 신도시 및 생태시범단지, 생태주택, 패시브하우스, 친환경 자원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GP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이카데미 등 매년 다양한 강의활동을 통해 국내 친환경 건축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Nature & Zen Style H house



2F PLAN

1. 부엌과 거실의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시원하고 막힘 없는 공간을 원한다면 때론 막아놓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쪽 벽 전체를 냉장고 깊이로 막고 벽장을 만드니 외부에 너저분한 물건들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TV장, 거실장, 냉장고장, 키큰장에 각각 이름을 붙인 가구를 널려놓을 이유가 없다. 공간은 더 넓어진다



1. 2층 가족실 소파에 앉으면 보이는 풍경 우리집이 자연이다 2. 왕겨솥



3. 4 방과 방이 만나는 2층 공용공간은 통로이면서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공간에 조금만 더 하늘을 볼 수 있는 창과 푸르름을 함께 곁들이니 서로의 얼굴을 보아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 5. 2층 중문 슬라이드를 닫으면 가족실은 아늑한 공간으로 남고 건너편은 통째로 아이방이 된다





1. 다락이 꼭꼭 숨어있을 의무는 없다. 하노카루버로 전체 마감된 천장 2. 쪽방은 어둡고 좁다. 하지만 천정을 살짝만 높이고 고창과 천창을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남향과 다들 바 없다. 하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침대를 놓고 천창을 통해 별을 바라보며 잠을 자면 더 재밌는 꿈을 꾸지 않을까 3. 자기만의 집을 짓더라도 대부분 욕실은 최소한의 공간에 화장실로 계획한다. 하지만, 여유있는 단독주택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욕실에 욕실을 부려볼 가치가 있다. 천창을 통해 석재타일에 투영된 빛그림자는 하루간 쌓인 복잡한 고뇌를 잊고 마음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하다







가변형 공간은 집을 넓게 만든다. 유학을 간 큰 아이가 돌아오면 방을 두개로 분리해서 쓰지만, 큰아이가 집을 비우면 작은아이가 큰방을 독차지한다. 발코니에서 파티라도 할라치면 두방의 문을 꼭고 닫고 통로로 사용하면 된다

